



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'제5회 호남권 정책협의회'에서 박광태 광주시장·박준영 전남지사·김완주 전북지사(왼쪽 다섯번째부터 오른쪽 순서대로)가 3개 시·도의 공동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.

/워터기자 jrwi@kwangju.co.kr

"광역경제권 전면 재조정 해달라"

호남 단체장 정책협서 12개 협약 공동 추진 합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 불균형 정책 철회 촉구

광주시와 전남도·전북도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5일 '5+2 광역경제권' 개발계획 전면 재조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했다.

박광태 광주시장,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'제5회 호남권 정책협의회'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과 12개 시·도별 제안 사업을 발표했다.

3개 지역 시도지사는 공동합의문에서 "지역균형 발전을 후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5+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혁신도시 조성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"고 요구했다.